

한양대학교 2008학년도 신입학전형 모의논술

인 문 제 열

출신고교 ( ) 학년 ( ) 성 명 ( )

1. 다음 제시문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판사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글이다. 명단 공개를 둘러싼 견해 대립의 두 가지 쟁점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그 쟁점들에 대하여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시오. (450 ~ 500자 / 배점 20점)

긴급조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을 영구화하는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근거로 내려진 초법적 규제장치이다. 직업이 없던 정 아무개씨는 1974년 1월 동네 이웃들에게 “삼선개헌과 긴급조치 등은 다 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현 정권이 무너지는 징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정씨는 대법원에서 7년 형이 확정됐다.

2007년 1월 3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 4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07년 2월 6일 ○○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X:** 판사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명예·인격권은 국민이 누리는 권리이지 국가기관의 권리가 아니다. 판사는 판결문에 이름을 남기고 무한책임은 지게 돼 있다.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판결이 내려짐으로 인하여 훼손된 것은 그 판결을 받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기관인 판사가 누가 봐도 위헌적인 처벌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이상 그들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다.

**K:** 긴급조치 시행 초기에 판사들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방으로 좌천되고 옷을 벗은 경우도 있다. 천편일률적으로 판사 명단만 공개한 것은 또 다른 여론재판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판결만을 수집하여 관련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30년 전이다.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내가 먼 고대에 살았다면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의 잣대로 볼 수 없다. 그 때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이번 명단 공개로 역사의 비겁자로 낙인찍힐 것이다.

**Z:** 원칙적으로 판결문은 공개하게 되어 있다.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관 명단도 알려진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은 우리의 사법 역사에서 아픈 상처다. 아픈 상처를 덮어두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판결문과 법관 명단 공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K:** 과거사위는 철저하게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특정 대선주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용하게 진실 규명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권위가 설 수 있다.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은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Y:**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엄밀히 볼 때 부작용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화해와 사회 통합이라는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는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방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X:** 국가기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실 대선주자들의 대선레이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럼 대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유신 청산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K:** 검사 명단 공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무한정 확장되면 의도하지 않은 인적 청산이 이뤄지게 된다. 화해로 가려면 인적 청산은 참아야 한다.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사실은 인적 청산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Y:** 인적 청산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과거를 밝혀내 새로운 통합을 하자는 것이다.

2.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다]를 읽고, 그 중심 주장과 근거를 찾아 약술하시오. 그리고, 어느 주장이 왜 더 설득력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500 ~ 600자 / 배점 30점)

[가] 주장이 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장의 근거는 각양각색이다. 어떤 근거는 강하고, 어떤 근거는 약하다. 어떤 근거는 적합할 수 있고 어떤 근거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제시된 근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선, 제시된 근거가 문제의 주장을 얼마나 강하게 뒷받침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근거가 참일 때 결론적인 주장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 근거도 참이어야 하지만, 논증과정도 모든 사람이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타당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은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는 좌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주력해서 연마해온 것은 누군가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본뜨는 복제 능력이었다. 그것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그 능력을 키우는 데 교육의 모든 힘을 집중시켰고, 그 능력에 따라 자리가 배분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매우 숙달되어 있다. 학생은 학교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되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잘하는 능력을 평가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역시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이었다. 회사원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고, 기업 활동은 국가가 세워 놓은 큰 틀 속에서 보호받았으며, 국가는 선진국의 모델을 이식해 왔다.

말하자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리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자신의 발전 모델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바깥에 의지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의 연쇄 구조에 균열이 생겨버렸다. 기업은 사원을 보호하지 않으며 국가는 기업을 더 이상 감싸고돌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1년과 2000년의 이직률을 비교해 보면, 광업 등 4개 부문에서는 2%-25%로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금융업 등 11개 부문에서는 11%-133%로 증가하였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을 온정주의로 품어온 선진국들은 이제 대등한 협상 내지 경쟁 상대로 변신하고 있다. 더 이상 '봐주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가 자기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시스템 안에 편입되어야만 자기의 사회적 입지가 보장될 수 있었던 시대의 세계관으로는 적응하기 어렵다. 이제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것인가에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지금 젊은이들의 고민이 있는 듯하다. 기존의 시스템에 진입하기가 매우 장벽이 높다. 설령 진입한다 해도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러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위 세대가 자신의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갈 때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소비 생활은 풍요로워졌으나 생산의 주체로서 자기를 세우기가 대단히 험난해진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강인한 내공이 요구된다. [중략] 지금까지 우리가 연마한 실력은 '주어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목표 그 자체를 스스로 설정하는 안목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마인드이다.

[다] 나는 세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세계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다만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지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던 경쟁은 점점 더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세계 어느 곳에 내일 당장이라도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고, 혁신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 누구든지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무 급변한다고 불평하고 저주해도 그것은 한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변화를 되돌려놓을 수는 없다. 함께 모여 구호도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고향도 치면 동지애를 굳히거나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자본과 세계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을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뜨거운 감성으로 맞는다면, 모든 사람을 동질화시키고 모든 것을 표준화해 버리는 세계화란 타도해야 할 제국주의의 음모로밖에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감정은 이성을 앞서게 마련이다. 변화에 동참해 과거를 체계적으로 폐기하고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그들은 외국과의 교역 등을 통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온몸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에게 세계경제란 변신과 적응 그 자체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다수는 그런 체험을 할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있는 그대로의 변화를 직시할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다.

변화를 주도하는 소수와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다수의 갈등과 반목은 계속될 것이다. 다수는 불안한 자기 처지의 원인을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와 타인에게서 찾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안한 정서에 호소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3. 다음은 유럽에서의 대학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글이다. 다만, 시대의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해 놓았다. 이 글을 통해 드러나는 대학의 4가지 사명을 시대 순으로 약술하시오. (300 ~ 350자 / 배점 15점)**

[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교환연구자들을 위한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의 새로운 과제가 국제화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은 초국가적인 협동체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자국의 국민은 물론 전 지구적인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 이 시기에 대학은 군주국과 자치시(市) 및 새로운 민족국가에 의해 통제되었다. 확장되는 통치 엘리트들의 훈련이 대학의 업무로 부각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학생들은 진보된 실용적 지식과 해당 분야의 고급 기술을 획득하도록 요청받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좀 더 유능한 국가의 관료들을 산출하기 위함이었다.

[다] 유럽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국가는 교육받은 성직자, 행정가, 법률가, 의사 및 공증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학, 곧 마스터(교수)와 학자(학생)의 길드나 협동체였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대학은 전문지식의 전수와 습득을 목표로 삼았다.

[라] 이 시기에 대학의 연구 임무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대학이 복지국가 형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확산에 따른 것이었다. 대학은 이러한 연구 업무를 통해 전문성과 독창성 및 실용성을 겸비한 심도 있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의 발전, 공중 보건의 향상, 지식 산업의 성장 등의 국가적 과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4. 다음 제시문들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나름대로 서술하고 있다.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각 제시문별로 찾아 약술하시오. (700 ~ 800자 / 배점 35점)**

[가] 우리는 이 세상에 종말은 없다고 믿으며, 어떤 일을 완수하는 것 못지않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미학도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편지를 받자마자 답장을 한 결과가 답장을 아예 안 한 경우보다 항상 나은 것은 아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는 수도 있겠지만 불쾌한 약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일을 잘 마무리해 주는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능률이 바로 여가를 훔쳐 가며, 그릇된 완벽주의를 불러일으켜 우리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여유를 허용하지 않고, 인간을 시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한 20만 명쯤 되는 직공이 있는 공장에서 2만 명쯤 되는 노동자들이 아침에 지각할세라 정문으로 밀려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짜릿할 정도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요소로, 어떤 사람이 다섯 시에 중요한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오후 내내 아무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대도시의 많은 성인들은 마치 학생들처럼 시간을 사용한다. 세 시엔 이 일, 다섯 시엔 저 일, 여섯 시 반이면 옷을 갈아입고, 여섯 시 오십 분에 차에 올라 일곱 시에 손님을 만나고. 이래서야 세상 살 맛이 날까?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오후가 있어야 할텐데.

[나] 현대인의 행복은 일 못지않게 여가에도 달려 있다.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절대적인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 또한, 일터에서의 일이 지겨운 타성으로 변질됨에 따라 여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요즘은 사람들이 여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행 산업, 레저 산업, 여가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여가 시간이 우리의 행복을 별로 증진시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물론 공휴일 내내 TV나 비디오를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고 나서, 심신의 피로와 허탈감을 느낀 일이 있지 않은가? 컴퓨터 게임이나 고스톱에 빠져서 밤을 지새울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날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회한 적은 없는가?

인간은 뭔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집중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 목표를 성취했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 그런 활동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이르면 목표를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일뿐만 아니라 여가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림이나 만화를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거나 연주하고, 시를 쓰거나 동영상 제작하는 것 등이 그러한 여가 활동의 예이다. 여가의 본래적 의미가 바로 재생산(re-creation)이라는 점에서, 여가를 능동적으로 보낼 때 개인도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화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이 상호간에 생각과 사상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정보를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나의 바람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나의 바람이 성취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결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이 활동에 참여하는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명체는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발달시켜 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참여하는 쌍방 가운데 발신자가 수신자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막무가내로 조르는 일, 자기 주장을 배설하듯이 내뱉기만 하고 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누구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있어서 발신자이기만 할 수는 없고 그와 똑같은 비율로 수신자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발신자로서의 입장만 중시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발신지향적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로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조차도 자주 발행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 화두로 대두된 ‘악플’이 그 좋은 예이다. 발신자 중심적인 행위만 일삼는 사람은, 자기가 수신자가 되었을 때 그런 행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호간에 윈-윈(win-win)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회자나 출연자들이 우리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옷 색깔을 보고 “이 옷과 저 옷은 색깔이 틀리네요.”라는 식의 말을 한다. 당연히 색깔이 다르다고 해야 옳은 표현인데도 틀리다고 말함으로써 그야말로 틀린 말을 하고 있다.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우리말을 잘못 배운 탓만은 아니라고 본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해방 이후 비뚤어진 우리나라의 정치사가 국민들의 마음에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동일하게 보도록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승만 정권 때나 30년 넘는 군부 통치를 거치면서 우리는 오직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 남한 대 북한, 아군 대 적군, 그리고 친구 대 원수라는 이분법적 갈등 구조를 몸에 배도록 배워 왔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라는 흑백 논리에 우리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반공을 말할 때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었으며, 조국 근대화를 위해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할 때 개발 독재의 어둠과 일그러진 모습을 말하면 그 역시 틀린 말을 하는 반항아였다. 조작된 여론과 지배 계급의 강자들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관대하게 다루기보다는 언제나 폭력적인 불관용과 억압으로 응수해 왔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불관용적인가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도 쉽게 여러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불관용의 만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동일하게 보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